

이란 리스크 재점화 속 코스피, 실적이 버팀목 되나

[주간증시전망] 중동 변수 시험대 반도체 강세 지속 여부 주목

코스피가 6200선 문턱에서 호르무즈발 앞 초를 만났다. 이란의 해협 통제 재개로 주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졌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실적표가 지정학적 불안 완화를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0일 5858.87에서 17일 6191.92로 상승하며 335.0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말 5052 수준과 비교하면 2주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셈이다. 삼성전자가 증가 기준 21만원선을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증시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있다.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 기대감이 빠르게 형성되며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브렌트유가 9.1% 급락하고 S&P500이 사상 첫 7100선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으나, 이란의 반복으로 미·유럽 증시는 주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아시아 증시는 개방과 반복 모두 휴장 중 발생해 상세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주 관건은 세 가지다. 우선, 20일 전후 미·이란 2차 종전협상이다. 이상준 NH투자

증권 연구원은 “추가 압박이 나오더라도 투자자들은 협상용 레버리지로 해석할 것”이라며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1일 케빈 위시 연준 의장 후보 청문회도 주목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물가 불안에 방점을 두느냐, 경기 방어 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23일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다. 삼성전자가 기대치를 크게 웃돈 만큼 반도체 업종 실적 상황 흐름이 확인

될 분기점으로 꼽힌다. 이상준 연구원은 “코스피 이익 전망치 상황으로 지수 상승에도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8.2배로 오히려 낮아졌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5700-6400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용량 급증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정유시설 피격에 따른 중동 재건 기대감이 증장기 테마로 부상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에스오일 본사.

에스오일 제공

에스오일 유가상승 실적 기대 정제마진 개선에 목표가 15만

한화투자증권은 19일 에스오일(S-Oil)에 대해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에스오일의 1분기 실적은 유가 상승과 견조한 정제마진 영향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000억원, 이 가운데 정유 부문 영업이익은 962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평가 이익 5985억원과 정제마진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은 9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제마진이 개선된 데다 재고평가이익이 반영되며 실적 기대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오일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2조 3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장기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전쟁 이전부터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정유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타이프한 수급 사이클 진입이 예고돼 있었다”며 “전쟁 종결 이후 재건 수요에 따른 디젤 강세와 설비 정상화 시차를 고려하면 고마진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원유 수급 불안과 정책 변수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 수급 불안과 내수 가격 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단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모회사로 두고 있어 원유 조달 안정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전체적으로 유가 흐름과 정제마진이 실적과 주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의 가격 억제 정책으로 휘발유 판매에서 일부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가 안정화 국면에서는 점진적으로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신한證 모험자본 35% 승부수

발행어음 자금 공격 운용 본격화 IB·종합금융부 신설 성장동력 강화

내부통제로 안정성을 다져온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 자금을 모험자본 투자 비중을 현재 24%에서 하반기 35%로 확대한다.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성장기업에 집중 투입해 투자은행(IB) 경쟁력을 높이고, 실적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포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으로 확보한 자금의 약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초대형 IB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 어음을 발행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발행사가 직접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해 예치 기간을 1년 이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조달한 자금이 벤처·중소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의무공급 비율인 10%를 크게 웃도는 35%를 모험자본에 투자한다. 발행어음을 성장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모험자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업금융(CIB) 총괄사장 직

속으로 생산적금융 전담 조직인 'IB종합금융부'를 신설하고, 자금 확보와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 내 발행어음운용을 맡는 부서를 별도로 구성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에 대응해 리서치본부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BDC는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펀드로 향후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앞서 신한자산운용은 1호 BDC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1호'를 전문투자자 전용으로 출시했다. 신한자산운용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오는 22일까지 투자자를 모집한다.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와 함께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레버리지 투자 증가에 따른 위험 노출 가능성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 화면 대출신청 및 신용거래 화면 내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그룹 차원의 기업금융 네트워크와 축적된 벤처·중소기업 투자 노하우를 활용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우량자산 선별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수 기자 tjdn3178@viva100.com



키움증권 취준생 금융교육 3기 수료

키움증권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키움 디지털 아카데미(KDA)' 3기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제공

한투운용 AI반도체 톱3+ ETF 수익률 1위

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 모두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AI반도체 TOP3+ 상장지수펀드(ETF)가 소부장 ETF 가운데 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16일 종가 기준 ACE AI반도체 TOP3+ ETF의 6개월·연초 이후·1년 수익률은 각각 115.91%, 90.55%, 346.29%다.

국내 상장된 소부장 16종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382.59%에 달한다.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6490억원으로, 지난해 말 순자산액 1336억원 대비 약 386% 증가했다.

지난 3월 순자산액 5000억원을 돌파한 이후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해당 ETF로 순유입된 개인 투자자 자금은 863억원이며, 전체 자금 유입액

2865억원 중 약 3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ACE AI반도체 TOP3+ ETF는 2023년 10월 상장된 반도체 투자 상품으로, 기존 'ACE 반도체포커스'에서 최근 'ACE AI반도체 TOP3+'로 명칭을 변경했다.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핵심 기술력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인 SK하이닉스(27.85%), 삼성전자(25.59%), 한미반도체(20.65%) 등 3개 종목에 약 75% 비중으로 압축 투자한다. 이 밖에도 국내 핵심 소부장 기업까지 포괄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집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AI 기술 고도화로 반도체 산업이 HBM 중심의 고성능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며 “핵심 종목과 공급망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ETF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주식회사 호림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물가가 안정

나날이 치솟는 생활물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고되게 하는 생활물가 상승!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로 인해 중심성장세가 둔화되고 취업자 감소와 내수부진에 따른 경제심리 마저 불안한 요즘,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조금이나마 인구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섭니다.